

은사적 성체신심 세미나 개요

Charismatic Devotion to Eucharist Seminars Summary

K S C © : 2006년 4월 13일 편찬

참고한 도서

The Life in the Spirit Seminars
(The Word of God Community)

신앙 성숙을 위한 성체신심 세미나
(서울 불모임 위임)

가톨릭 성령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봉사위원회
편 찬

KOREAN SERVICE COMMITTEE
OF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N THE AMERICAS

소개 강의

1. 왜 성체신심 세미나를 하나?

- (1) 성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교의) 을 확실하게 알고자 합니다.
- (2) 성체 안에 그리스도가 실존함을 은사적으로 인식하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 (3) 성체신심을 생활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 (4) 성체신심을 은사적으로 세상에 선포하여 성령의 현존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 하느님의 인류구원 계획과 속죄의 제사: 성체성사

- (1)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세상의 창조와 인류구원 계획인데, 이는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 즉 속죄의 제사는 구약성서에서 모두 예시 되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등)
- (3)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구원의 속죄 제사를 성령 안에서 성체성사로 전환시켰습니다.

3. 성체신심의 역사

- (1) 구약시대
- (2) 신약시대
- (3) 초대교회에서 12세기
- (4) 13세기 이후
- (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 (6) 교회역사 안에서 성체신심의 위상

4. 성체와 나의 관계

- (1) 성체성사를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성체성사에 참여합니다.
- (2) 성체성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나도 영성체를 통하여 주님의 현존을 성령 안에서 은사적으로 체험하므로써 예수님과 더욱 깊은 친교를 가지게 됩니다.
- (3)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며, 영성체를 통하여 주님과 결합하여 하나가 됨을 확인합니다.

5. 성체신심의 특성

- (1) 하느님은 모든 신심의 궁극적 대상이며,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사이에서 성체성사는 하느님께 대한 경신(흠숭)례의 핵심이 되는 신심입니다.
-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을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아버지께 봉헌하신 다음 그 사랑의 제물을 성령으로 우리가 나누어 떡게 하사 우리와 결합하여 우리 안에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사랑의 계약입니다.

6. 성체조배중에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느님께 봉헌

우리가 성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우리는 먼저 성체조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영성체 기도 : page 10)

제1강의: 하느님의 사랑/ 인류구원 계획과 속죄의 제사

제2강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십자가상의 제사

제3강의: 새 생명/ 성체성사

제4강의: 하느님의 은총을 받음/ 영성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음)

제5강의: 성령 안의 세례(잠김)/ 성체(성사)신심 봉헌 미사

제6강의: 성령 안의 성장/ 성체 성사로 자람

제7강의: 그리스도로 변화됨/ 성체 안의 그리스도를 닮음

제1 강의:

하느님의 사랑 / 인류구원 계획과 속죄의 제사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려는 것이다.” (요한 3; 16-17)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 -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창세기 3;15)

하느님께서서는 여인의 후손에 의하여 사탄을 물리치는 인류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조들이 하느님께 드린 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의 예표입니다.

1)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사악을 봉헌하기 위하여 그에게 번제에 쓰게 될 나뭇짐을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외아들이 구원의 제물로 봉헌되기 위하여 십자가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 갈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말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창세기 22; 12)

2)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맺은 구약은 결국 십자가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게 될 신약의 예표입니다.

3)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사업이 성취될 것임을 예시하시고,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봉헌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되리라는 복음을 예시하셨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 하리라.” (민수기 21; 8)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3; 14-15)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 마련한 인류구원을 위한 속죄의 제물입니다. 인류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입니다.

“애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 놓았다.” (이사야 53;2-10)

“그리스도는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먼젓번 계약 아래서 저지른 죄를 용서 받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히브 9;15)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3: 23-26)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하는 처지인데, 사람을 하느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시고,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실 분은 속죄의 죽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개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입니다.

“죄는 세상에 균임하여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은총은 균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5;14)

제2 강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 십자가상의 제사와 체후의 만찬

“그 분(그리스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1베드2; 24)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 부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3; 24-26)

하느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하느님의 외아들이 세상에 오시고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인류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창세로 부터 하느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시된 모든 계시가 실현되는 인류구원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머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성찬 축성문: 복음 종합)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봉헌되는 자기자신(제물)을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먹이기 위하여 사도들과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성체성사’ 를 세우셨습니다.

1) 5천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은 성체성사의 예표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내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 6; 51)
5천명을 먹이실 때나 최후의 만찬에서나 똑 같이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심은 이 빵의 기적이 성체성사(거룩한 기적의 신비)를 예시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2) 주님은 인류가 당신의 새로운 계약에 참여하도록 최후의 만찬때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느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에 참여하려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접촉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희생 제물이 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상의 제사에서 실현되었고, 새 계약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이를 위하여 흘릴 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 계약을 받으시는 분은 한분 하느님이시지만 옛 계약과 새 계약과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1) 구약과 신약은 제단과 중재자와 희생 제물과 계약조문이 모두 다릅니다.

시나이 산에서의 옛 계약은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이 맺은 새 계약의 전표였습니다. 신약은 제단도 중재자도 희생 제물도 계약 자체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 구약과 신약은 효과도 서로 크게 다릅니다.

구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고, 가나안 복지등 하느님의 축복도 약속되었고,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신약은 인류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계약의 참여대상과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백성위에 뿌려짐으로써 계약에 참여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은 계약에 참여합니다.

제3 강의:

새 생명 / 성체성사의 은총

“내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때가 오면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한 5 ; 24-26)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사도 2; 46-47)

성체성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상의 은총이며, 성체는 주님 자신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와 결합하시는 주님은 우리 영신의 양식이며,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불사불멸의 영약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1) 주님의 현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성체성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실체변화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새 생명을 양육하십니다.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요한 1; 18) ‘주님은 영입니다’ (2 고린토 3; 17) 하는데, 주님께서 성체성사로 볼 수 있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당신이 현존하시는 은총의 신비(기적)를 이루십니다.

- (1) 성자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영혼과 육신을 가진 인간을 위하여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 (2) 주님이 볼 수 있는 빵의 형상으로 실존하시는 이유는 성사로서의 ‘표지’ 그리고 ‘우리에게 먹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 (3)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먹혀서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살기위하여, 성령의 현존 안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2) 최상의 제사 봉헌

십자가상의 제사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대사제가 되어 최상의 제물인 흠 없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성부께 봉헌한 제사이기에 최상의 제사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명령으로 단 한번의 십자가상 희생제사를 현재화시키는 성체성사는 매번 최상의 제사입니다.

- (1) 성체성사는 하느님 아버지께 흠숭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 (2) 성체성사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 (3) 성체성사는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화해의 제사입니다.
- (4) 성체성사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탄원(청원)의 제사입니다.

3) 주님과 한몸을 이루는 일치의 성사

‘여러분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가 됩니다.’
(1고린 12; 27)

4) 이웃과도 일치하는 친교의 성찬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하소서.’ (성찬기도 제3양식 에서)

5) 영원한 생명의 양식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요한 6; 54-55)

제4 강의:

하느님의 은총을 받음 / 영성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 4 ; 14)

“그때에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설명해 주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 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루가 24; 30-31)

1) 미사 성제

미사 성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이며 최상의 기도입니다. 미사는 구약의 여러 제사를 완성한 십자가상 제사를 현재화한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우리는 미사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봉헌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맞아 들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7; 19)

‘그리스도인의 사제직은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제인 동시에 희생 제물입니다.’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 주교)

- (1) 미사의 의미: 빵을 나누는 성찬, Missa, 거룩한 제사
- (2) 예수님은 미사 성제를 위하여 신품성사를 세우셨습니다.
- (3) 주님의 날에 미사성제가 거행되었습니다.
- (4)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제직에 참여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2) 미사 봉헌을 위한 내적 준비

- (1) 하느님 성삼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미사봉헌에 필요한 은혜를 청합니다.
- (2)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회두(회심, 회개)합니다.
- (3)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청원(미사지향)을 드립니다.

3) 미사 봉헌을 위한 외적 준비

- (1) 주일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합니다.
- (2) 주일 미사를 위하여 주일에는 가급적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 (3) 영성체를 하기 위하여 공복제를 지킵니다.
- (4) 미사가 봉헌되기 전에 성당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4) 미사 성제의 두 전례 (식탁)

- (1) 말씀의 전례
 “그때에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경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설명해 주셨다.” (루가 24; 27)
- (2) 성찬의 전례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 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루가 24;30-31)

5) 영성체

영성체 기도(St. Thomas Aquinas), page 10

제5 강의:

성령 안의 세례(잠김) / 성체(성사)신심 봉헌 미사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 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 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마르코 1; 9-11)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요한 3; 5)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례성사를 세우시고, 세례성사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 은총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 1서 2; 9) 예수님께서서는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미사성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구원제사를 봉헌하는 사제직에 참여토록 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요한 6; 53-54)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하고 말씀 하셨다. - - -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하셨다.” (누가 22; 19-20)

그리스인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 자신인데,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모여 미사 성제를 하느님께 봉헌할 때 그 가운데 총만하게 현존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 미사성제는 그리스인 생활의 중심이고 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봉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이하는 미사성제를 봉헌하는 가운데 성체로 오신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데 말씀의 전례후에 우리는 신앙고백과 함께 세례때 주님께 드렸던 ‘서약’ 을 다시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던 ‘세례 성사’ 의 은총을 갱신하는 ‘성령 안의 세례(잠김)’ 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 고린 11; 26)

제6 강의:

성령 안의 성장 / 성체 성사로 자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 15; 5)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요한 6; 53-54)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느님과 대화)하고, 성경(하느님의 말씀)을 들고 성사(특히 성체성사) 생활을 통하여 생명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명을 순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이웃의 사랑을 받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생명과 사랑의 친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 성경, 성사, 그리고 친교로 이루어 지는 생명과 사랑은 모두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양육하기 위하여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당신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우리의 새 생명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계속 십자가위에서 봉헌하신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먹이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과 피로 된 성체와 성혈을 먹고 마시게 하여 구원된 자들의 삶을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 전환시켜, 하늘 나라를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1) 성체신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미사에 자주 참례하도록 초대하시고, 영성체함으로써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갈망을 주십니다.

2) 영성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연히 겸손한 자세로 정성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영성체를 위한 겸손한 자세는 이렇습니다.

(1) 동정 마리아의 자세: 동정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가 1; 38) 하시며 주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2) 엘리사벳의 자세: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루가 1; 27) 하며 황송해 하였습니다.

(3) 세례자 요한의 자세: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요한 1; 27)

(4) 백부장의 자세: (마태 8; 8)

(5) 세리의 자세: (루가 18; 13)

제7 강의:**그리스도로 변화 / 성체 안의 그리스도를 닮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요한 15; 16-17)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7; 18-19)

성체성사의 근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화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음식은 그것을 먹는 사람의 몸으로 변하지만, 성체는 성체를 영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변화시킵니다.

첫째 예수님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닮음.

- 1)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첫자리에 놓고 사랑해야 합니다.
- 2)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 3)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친밀한 사귀를 나누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웃 사랑을 닮음.

- 1)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 13)
- 2)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 사랑을 완성해야 합니다.
- 3) 우리도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했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생활 자세를 닮음.

+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 삼덕(청빈, 순결, 순명)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넷째 성령과 함께 사는 예수님의 삶을 닮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가 4; 18-19)

- 1)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과 일치하여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 2)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 3)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영성체 기도

(St. Thomas Aquinas)

오!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느님, 죄 많고 무자비한 저를 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황송하옵게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몸과 피로 길러 주시니 그저 감사드릴 뿐이옵니다.

이 거룩한 성체가 저를 단죄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용서와 구원이 되게 하소서. 제 믿음의 무기가 되고, 착한 의지의 방패가 되게 하소서. 저의 악한 성향을 약하게 하시오며, 저로 하여금 정욕과 번뇌를 멀리하고, 사랑과 인내, 겸손과 순종을 얻게 하소서.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는 제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는 굳건한 방패로 삼게 하시고, 육적이거나 영적인 제 충동을 평온히 하여, 한 분이요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에게만 굳게 의지하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과 성령, 그리고 성모님과 모든 성인들과 별리는 천상 잔치로 저를 인도하여 참빛이신 당신을 뵈옵고 지복직관계 하시오며, 영원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 경본

개회 미사 : 성 목요일 / 주님의 성 만찬 미사

봉헌 미사 :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CORPUS CHRISTI) 대축일 미사

파견 미사 : 삼위 일체 (Trinity) 대축일 미사